

가치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

- 한국건축사협회 발기인대회를 바라보며

Desirable Way to Value Actualization

우리들의 건축사(建築史)

우리사회는 근대이후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루어내었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수록 그에 발맞추기 위한 사회 여러 분야의 성장통은 증대되어왔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축인들도 숙명적으로 단시일 내에 해결하여야할 많은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건축계는 시대의 변화요구에 앞서 선행되어야할 전문인의 체계적양성과 교육, 법의 제정과 보완 등을 시대변화의 물결에 떠밀려 수동적인 모습으로 수습하여 정비해왔다. 이로 인해 건축계는 건축인 양성을 비롯한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역할 등에서 바람직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하였고, 많은 편차를 가진 건축인과 건축물들의 모습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수의 건축인들은 건축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건물을 생산하였고, 좋은 건축물을 찾아내기 어려운 이 땅의 건축현실에 불명예스러운 기여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들은 국민들로부터 전문인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사회적 인식의 뒷전에 머물러 있다.

건축계에는 얼마 전까지 3단체가 있어왔다. 3단체 중 대한건축학회는 학문연구에 기여해왔고,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은 시기에 건축관련인들로 구성되어 현재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관련법이 정비되는 시기에 뒤늦게 출범하여 건축사를 대표하는 공식적 전문단체로서 유지되어왔다.

몇 년 전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기존조직에 한계를 느낀 건축인들이 새로운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건축사협회'를 설립추진하였으나, 협회설립의 회원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현재 '협의회'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 이리저리한 이유로 건축계는 여러 협(의)회가 존재하게 되었고 각 협(의)회간의 자리매김을 위한 불안정한 움직임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

"드디어 우리 한국 건축계에도 희망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갈라져 나가기만 하던 물줄기가 다시 하나로 모아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건축사협의회와 한국건축가협회는 통합하여 하나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전 한국건축사협회의 발기인대회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이러한 외침이 전체 건축계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거듭나면서 외쳐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현재 건축관련 협(의)회들의 설립목적들은 국민과 공익, 문화, 회원의 교류와 권익보호, 국제화 등 대부분의 지향하는 바가 대동소이하며, 요즈음 수립한 세부과제에서도 법의 제정, 신진작가발굴 등 표면적으로 또는 심정적으로 대다수가 공감하는 공통과제들로 구성되어있다. 이것은 우리들이 과제들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증거이며 나아가 건축계가 하나 되어야 할 근본이유이다.

건축계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과제와 외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여러 대내외적 수많은 요구와 과제들의 해답을 찾아 정리해야하고, 실천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조직체를 재구성하고 정비해야한다.

현재 우리 건축인들은 힘을 모으고 조직을 재정비하여도 풀기 어려운 여러 난제들 앞에서 외로이 서 있다.

건축지도자를 향한 바람의 글

가던 길을 되돌아 나와 처음부터 새로이 시작하여 주십시오.
모든 건축인의 지지를 받는 하나 된 협회를 위하여 대화해주십시오.
혹여 모두가 마음을 열어놓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건축계의 통합이 어렵다고 모두가 느낄 때, 그때에는 어찌할 수 없겠지요.
그때가 되면 누구도 새로운 협회의 태동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건축인들에게 협회를 선택해야하는 혼란과 고통의 과정을 생략하여 주십시오.
힘을 결집시켜 주십시오.
많은 건축인들이 지도자의 새로운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건축사협회에서 제시하고 나열한 목표와 이상들은 모든 건축인의 바람이었다. 단지 우리들의 힘이 모자라,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실현되지 못한 건축계의 과제였다. 주체가 누구이든 산적인 과제를 해결한다면 모두가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건축계의 전반적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발족된 '한국건축사협회'가 단독으로 목소리를 높여 해결해 나갈 수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국건축가협회의 회원이기도 한 본인은 다양하고 풍요로운 한국건축가협회의 활동을 바라보며 많은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번 글을 정리하면서 접하게 된 새건축사협회의 많은 발행물에서 건축에 대한 깊은 고뇌와 외침, 그리고 이상을 향해 질주하려는 수많은 노력의 흔적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건축사협회를 발족시킨 한국건축가협회와 새건축사협회의는 각 협(의)회 사이에 대화의 창구가 열려있음에도, 현실인식과 목표가 대동소이함에도 다소간의 다름을 이유로 꼭 새로운 협회를 신설해야하는지 침묵하는 다수 건축인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한국건축사협회는 건축계의 가치와 이상을 품에 안고, 대통합을 향한 새로운 물결이라는 진정성을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어쩌면 이는 현재 분열된 소수의 조직들을 고착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대통합을 가로막는, 뜻하지 않은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다. 성장통은 잘 이겨내면 고통은 단기적 고통으로 그치고 한 단계 성장하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할시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고통과 자괴감에 시달리게 되며, 우리의 뒤를 따르는 젊은 건축인에게 커다란 짐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건축지도자를 향한 바람의 글

우리의 건축지도자들은 회원과 공익을 위해 번뇌하고,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며 주변을 변화시켜왔습니다. 우리는 가슴이 뜨거운 건축지도자들을 존경합니다. 당신들은 지금도 우리들의 전열 맨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한국건축사협회의 발족은 잘못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다수 건축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 나와 처음부터 새로이 시작하여 주십시오.
모든 건축인의 지지를 받는 하나 된 협회를 위하여 대화해주십시오.
혹여 모두가 마음을 열어놓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건축계의 통합이 어렵다고 모두가 느낄 때, 그때에는 어찌할 수 없겠지요.
그때가 되면 누구도 새로운 협회의 태동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건축인들에게 협회를 선택해야하는 혼란과 고통의 과정을 생략하여 주십시오.
힘을 결집시켜 주십시오.
많은 건축인들이 지도자의 새로운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